

제 103 호

연중 제 33 주일

(강림 후 24)

1974. 11. 17.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중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3498)

□평신도의 날□

【강론】



행동의 시대

이 상 호 신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지도 10년이 되어간다. “평신도”란 말을 사용한지는 10년이 더 넘는것 같다. 그래서 평신도란 말도 귀에 익고 몸에 젖어 어색하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이번 공의회야말로 평신도의 공의회라 할 만하다. 평신도의 참뜻을 되찾아 평신도의 사명을 일깨워 그 사명을 다 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평신도들은 성직자의 그늘 밑에서 살아온 감이 있다. 10여년동안 평신도에 대한 강론, 강연, 세미나를 듣고 읽어왔고 또 그 조직운동에 참여 해 왔고, 본당 교구 및 전국적 조직을 통해서 교회 운영과 전교사업 및 사회봉사에 다각적인 운영과 다대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평신도의 인식과 활동이 일부 지식층에 국한되어 있고 평신도 전체에 침투되지 못한것 같고 그 활동 역시 미약한 상태이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며 주체성 있는 운동이 못되어 성직자들에게 의존하려 한다든가 성직자들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경쟁의 시대요, 실천의 시대요, 행동의 시대이며 지식이 실용화되고, 기술이 정밀화 되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평신도들의 활동은 너무 미약하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서뿐 아니라 종교계의 경쟁도 대단하다. 그리스도교파뿐 아니라 비그리스도교파나 산당들의 활동과 암투는 너무나 치열하고 눈부시다.

그에 반하여 우리 가톨릭은 아직도 침체되고 낙오되고 뒤떨어진것 같다. 이제 겨우 눈뜨기 시작한 우리 평신도들의 정신에도 일대 변화가 있어야겠다.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며 무관심적이고 타의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겠다. 교회의 운동이나 조직에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가 꼭 참여하도록 공의회는 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성직자들에게는 권위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고 평신도들에게만 맡겨서 될까 하는 노파심이 살아있다. 한편 평신자 역시 성직자들이 이루어주어야 하고 앞장서야 하지 하는 의태가 남아있는것 같다. 평신도들의 교회내에서의 직책회피, 각종 회합에의 불참, 자기의견과 맞지않을때의 불협조와 비난, 파생적인 그룹 조성등 교회내의 부조리현상이 아직도 많이 있는것 같다. 화해와 해신의 성년도 점점 무르익어 갈 뿐 아니라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것을 통한 성년에 평신도들이 진정 반성하고 쇄신해야 할것이다. 무엇보다도 알아야겠고, 성직자들도 평신도들을 믿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반성해야겠다. 평신도들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성직자나 지도자들에게도 있지않나 생각해되며 적어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직자 평신도가 서로 믿고 이해하며, 일치단결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할 것이며 순회교육을 더 강화해서 평신자 재교육에 힘써야겠다. 비오12세 교황께서는 현대는 행동적 무신론시대라고 하셨다. 이론보다 현실적 행동에서 무신론자와 같이 생활하는 물질주의 문명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산 신앙을 사랑과, 정의와, 봉사와 희생의 생활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신태인 본당 신부>

* 이 주일의 미사*

(1) 개회식

□**임당소** 나는 재앙을 내리려 하지 않고 평화를 주려 하노라. 나를 부르라.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도쳐서 불러들이리라.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말라키아 4 : 1-2^a)

정의의 태양이 너희 위에 떠오르리라.

□**증계송** ◎공평하게 백성들을 다스리시려 주께서 오시리라.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노래하라. 수금에 가락 맞춰 노래불러라. 나팔에다 각적소리 한데 어울리면서 입금 이신 야훼앞에서 한껏 즐겨라◎

□**제2독서** (베살로니카 후서 3 : 7-12 성서 p. 473)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 구원이 가까왔으니. 머리를 들고 쳐다보라. 알렐루야.

□**복음** (루가 21 : 5-19 성서 p. 188)

인내로써 너희 영혼을 구하라.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평신도 사도직의 부름을 받은 모든이에게 그리스도 왕국을 전하며 또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끔 평신도 사도직의 사명을 느끼어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일부의 양심적이며 성실한 자제로 견제와 조구를 위해 일어서려 하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멈춰있고 있는 그들에게 과감히 일어서실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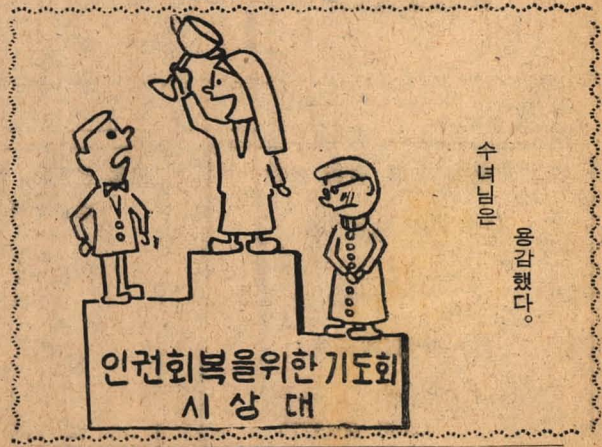
3. 사랑의 주여, 우리의 많은 형제가 지금 배고픔에 죽어가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 책임을 느끼어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4. 진리와 정의 실현을 구하려 외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너무나도 차가운 현실앞에 목놓아 울어 하마 그러나 또 면치않아만 하는 슬픈 그들에게 더없는 용기와 인내를 불어넣어 주소서◎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야훼님 곁에 있는 것이 내게는 행복, 이 몸을 뜻 야훼님이외다.

* 숲정이 산책 *



수브린의

음감했다.

인권회복을위한기도회
시상대



당 신 에 게

〈김 아우구스띠노〉주교님에게

이 승 헌

백옥처럼 흰 옥잠화 향기와
더불어 사시면서도
늘,
우리를 위해 가슴을 앓으시는
당신.
홍한 손도 어루만져 주시는
그 따뜻한 체온 앞에서
우리는 몸 둘 바를 모르네.
가장 가까웁고도 먼
우리와 당신.
당신의 발치에 귀 기울이면,
오, 눈물의 바다를 이루워
때론 분노의 파도가 되고
때론 영혼의 황금샘이 되어
참말이지, 우리의 나이를 부끄럽게 하네.
바람터틀 찾아 온
하늘나라 진리(眞理)의 초병(哨兵),
한 초병이 되어
거덜난 자유의 광장을
지키다가
당신은 하늘나라의 사명으로
순교정신의 피흘림.
사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겨레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당신과

동행자(同行者)가 아닌 비사별.
〈우수의 노래〉 시인은
어떤 목청으로 꽃을 피우고
어떤 목청으로 비명을 지르고
무슨 표정으로 통분해야 하나?
그러나,
늘 당신은 저승의 옥잠화 등산을
사모하면서
이승의 어둠을 지키주시며
가꿔놓은 당신의 포도밭에
찢어진 가지도 새 움이 돋고
분노는 사색이 되고
부정은 해신의 제기가 되네.
한 평생
죄인을 용서하되
존경 받기 위함이 아니요.
신앙이 약한자를 불쌍히 생각하되
당신의 지위가 높음이 아닌
오묘한 빛의 언저리.
나는 해엄치고 싶네.
그 신비 속을.

〈필자 : 시인 : 전 월간 약진 전북 문예부장〉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 조제약 전문

김 울태(베드로)

☎ 육교열 중앙 시장통
(전화 ③4577)

고급 선물용, 케익, 빵, 파자, 참살떡

◎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

미미 제과소

상업은행 옆 (②6589)

미미 예식장

남문 옆 (②3915)

김 민주(가타리나)

◎ 닭 · 염소 · 야생동물 일체 ◎

화랑상회

〈교우들에 특별 봉사〉

최 병 수(안당)

남부시장 닭전

전화 ② 6C91(교환) 108

□양 지 폭□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

한 상 갑

“죽음은 식전(食前)의 담배 한 모금보다도 쉽다. 그렇지만 죽음은 결코 그의 창호(窓戶)를 두드릴리가 없으리라고 넘겨잡고 있는 그였다”고 이상(李箱)은 그의 작품에서 말한다.

옛그제 있었던 화재에서 우리들은 많은 죽음을 보았다. 죽으려고 그 자리를 찾은 것은 아니로되 그렇게들 죽고 말았다. 아무도 죽음이 자기를 찾아오리라고 예견하거나 기대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렇게들 죽고 말았다. 하기야 그 몇일전의 화재사건에서 구출된 아가씨가 그래도 춤이 추고 싶어서(?) 나왔다가 이번에는 정말로 죽고 말았다니. 모두들 죽음이 자기는 피해서 지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러기를 바랄 것이다.

언젠가 중공의 실력자였던 모모인들의 죽음에 대한 신문보도가 있었다. 장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엄청나고 믿을 수가 없기에 아무도 그들의 공식적인 발표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최근의 보도는 그들이 정치적 죽음을 당했다고 말한다. 육체적인 죽음이던 정치적인 죽음이던 당사자에게는 좋지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의 죽음이던간에 피하고만 싶고, 또 그렇게들 노력을 한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생명의 전부라고 여기고, 또 어떤 이는 권력이 그것이라고 여겨 돈이나 권력과 자기 목숨을 바꾸기까지도 한다. 보석을 탐내다가 자기 이름을 더럽히고 정신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비참한 최후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볼 수 있다. 하기야 우리는 일찌기, 죽음 앞에 비겁했던 빌라도의 이야기를 성서에서 읽어 보았다.

죽음이 어느 누구에게나 싫은 것만은 사실이다. 세상 구원의 중대한 사명을 띄고 우리들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잡히시던 남은 피땀이 흐르도록 고민하시고 죽음 앞에 몸을 떨었다. 그는 평소애 옳은 것은 옳다하고 그른것은 그르다고 하시며 가장 옳다고 거드름을 피우던 바리새이들을 <회절한 무덤>, 또는 <독사의 무리>라고 사정없이 나무라셨다. 이미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였지만, 당장 눈앞에 죽음을 가까이 한 그는 인간적인 면에서 죽음이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곧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자기를 봉헌할 줄 알았다. 바로 이것이다.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죽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영생을 얻는 길이다. 위령성월인 11월에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한다.

요심이 '69' 김병오



□시간안내□

루가 복음 해설

신자들의 묵상 길잡이 1,300원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이 주간의 성경

- 18 (월) 성 베드로 대 성전과 성 바오로 대성전 축성
독서 (묵시록 1:1-4, 2:1-5a 성서 p558)
복음 (루 가 18:35-43 성서 p. 181)
- 19 (화) 독서 (묵시록 3:1-6, 14-22 성서 p. 561)
복음 (루 가 19:1-10 성서 p. 181)
- 20 (수) 독서 (묵시록 4:1-11 성서 p. 564)
복음 (루 가 19:11-28 성서 p. 182)

- 21 (목) 성모 자헌 기념
독서 (자카리아 2:10-13)
복음 (마태오 12:46-50 성서 p. 29)
- 22 (금)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 기념
독서 (레위기 19:1-2, 17-18)
복음 (마태오 7:21-27 성서 p. 15)
- 23 (토) 성 클레멘스 교황 순교, 성 팔로마노 아파스
독서 (묵시록 11:4-12 성서 p. 573)
복음 (루 가 20:27-40 성서 p. 186)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 씨 관 집

◎ 교우들에게 특별염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② 6691 교황 85 번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프 랑 스 제과 * 입 금 님 찾 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②5011 찾 집 ②5013
김 원 준 (야고버)

◎ 교형 여러분의 집 ◎

현 대 사 진 관

김 낙 준 (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② 628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조국을 위한 기도회 (오늘 오후 2시 전통성당에서 주최:교구 중·고·대학생 연합회)
조국의 평화를 염원하는 전주교구내 모든 중·고·대학생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전주교구 울드레아 (오늘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
모든 꾸르실리스타는 시대의 징표를 바로 읽어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말씀의 광장: (11월 18일 가톨릭 센터 강당. 7시 30분)
① 교회의 현실 참여의 신학적 고찰: 김중택 부주교
② 사회적 측면에서 본 정의의 구현: 장명수 교수
4.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 (11월 20일<수> 오후 7시, 중앙 성당에서)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전주교구 추계 성직자 테니스 대회에서 박진량, 김용태 신부조 우승 (11월 11일)
6. 전주교구 중·고등 연합회 제 2차 회장단 회의 개최(11월 24일 오후 2시:가톨릭센터)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활승 천 사도 회장 조해형

1. 부녀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교무금 신입에 적극 협조 요망
3. 미납 교무금 속히 완납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남노: 박 베로니카 (2,000원)
중노 1가: 한영순 (2,000원)
왕정공소 주일학교 학생, 교사 (1,100원)
왕정공소 교리교사 한 케지나 (2,000)
주계 24,100원 누계 1,727,652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반회일정
11반: 이승현 11월18일(월)
12반: 박방지, 강남준 11. 19(화)
1·2반: 김한기, 이양환 11. 20(수)
7·8반: 한형수, 장가타리나 11. 21(목)
2. 공소 일정
신흥리: 11. 21(목) 서당리, 복제 내정: 11. 22(금)
내어두리: 11. 26(화) 외어두리 11. 27(수)
신리: 11. 28(목) 의암, 마취 12. 2(월)
3. 신용조합 이사회: 11월 22일 저녁미사후
☆ 축 결혼: 11월19일 오전 11시
신랑: 윤대호(분도) 신부: 이금자(누시아)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사도회 전체 확대회의: 다음주 공식 미사후
2. 신용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후
3. 75년도 봉헌금 카드를 사무실에서 찾아 가시길
4. 75년도 봉헌금 미신입자는 신입 바람.
5. 분당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미사: 11월30일(토) 5시30분
축하식: 12월 1일(일) 공식 미사후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승현 사도 회장 이현재

1. 평신도의 날 (평신도 사도회장 특별강론)
2.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 저녁미사후(월) 저녁 미사후
3. 꼬미씨움 월례회: 오늘 오후 1시30분
4. 글라라 형제회: 23(토) 오전 10시30분 심의회
5. 성가 회원 모집: 여성가 회원 (30세이상) 가입요망

◇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강 모니카 (용애) 부녀부장

애령회 특별헌금 8,017원

(북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교무금 신입 및 납부요망
2. 미사시간 변경
주일 오전 10시(공식미사) 오후 6. 30분
평일 오후 6시 30분
3. 꼬미씨움 회합: 전통에서
지난주 성미 1말 5리 누계 327말)

(중앙)

전화 ②2651 ③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서석구 사도 회장 이복석

1. 성모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평신도의 날 특별헌금
3.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저녁 7시30분
성당상가 럭키예식장에서
4. 주일헌금 봉투제 실시.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창제 부 신태인 정	녹화 사업에 힘씀시다 부녀 성가 연습 실시 사도회 월례회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성모회 월례회	2,745원 11,105원	제 3 지구	창인 등	인권 회복 기도회<18일> 관공 성사에 모두다 임함시다	20,780원 3,100원
		9,060원	제 4 지구			노송동 부녀회 월례회 덕진 신용조합 월례회 북자 꼬미씨움 회합 서학동 반 회합 실시 전 중 성가 회원 모집 앙 성모회 월례회	19,215원 7,426원 15,015원 11,322원 42,303원 38,601원
제 2 지구	매 문야 아 들을 동 중 동	미납된 교무금을 속히 납부함시다 구역반회 개최 미사 시간 및 말씀의 전례 변경	1,260원 36,300원 10,800원	제 5 지구	남 부원 주 장 계 언	사도회, 구역장 임원 회합 지성인 교리 <매주 토요일> 공소 관공 관계로 평일 미사 없음 미사 시간 변경	3'815원 3,600원
제 3 지구	고 금산 여 주현 동	사도회 <공식 미사후> 단합 친선 친목 체육대회 금마중가 중가 중교 자녀 중교 교육에 협력 함시다	2,815원 8,271원 2,280원 7,000원				